

애플·화웨이, AI·폴더블폰 도전... 삼성, 할인·차별화로 방어

불 붙은 '스마트폰 삼국지'

애플, AI 혁신 앞세워 시장 주도
화웨이, AI·폴더블 결합 경쟁 격화

삼성, 갤럭시 Z시리즈 대폭 할인
더 얇아진 폴더블폰 출시 차별화

삼성전자에 이어 애플과 화웨이가 잇따라 신제품을 공개하면서 인공지능(AI) 스마트폰 시장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애플은 9일(현지시간) AI를 탑재한 아이폰 16 시리즈를 공개했다. 같은날 화웨이는 화면을 두 번 접는 폴더블폰을 내놓으면서 맞불을 놓고 있다. 앞서 AI 폰과 폴더블폰 신제품을 내놓은 삼성전자는 글로벌 1위 입지를 지키기 위해 할인 공세를 펼치는 등 방어전에 돌입했다.

◆아이폰 16, 한국 1차 출시

애플은 이날 선보인 아이폰 16 시리즈와 애플워치10, 에어팟4, 에어팟 맥스2 등의 핵심은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특히 아이폰16 시리즈는 통화 녹음과 대화 내용 요약이 가능해진다. 팀 쿡 최고경영자(CEO)는 "아이폰16 시리즈는 처음부



삼성 갤럭시 AI 폴더블 폰 출시 기념 사전 예약 행사가 지난달 대구 신세계백화점에서 진행됐다. /뉴시스

터 AI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아이폰16은 오는 13일부터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 호주,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 등 59개 이상에서 사전 주문할 수 있고 20일부터 매장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한국이 새 아이폰 1차 출시 국가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AI 기능은 당장 사용할 수 없다. 현재 출시될 아이폰 16에는 탑재가 되지 않으며 다음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베타 버전이 제공된다. 먼저

영어만 지원하며 내년에 중국어, 프랑스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 더 많은 언어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어 AI 제공 시점은 아직 알려지지 않아, 내후년인 2026년에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두번 접는 스마트폰

같은 날 중국 최대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도 두 번 접는(트리플 폴드) 스마트폰을 공개하며 시장 선점에 나선다. 선주문 물량을 포함한 제품의 공식 판매 20일 시작된다. 신제품의 이름은 '메이트 X

T'로 선주문이 24시간 만에 200만건을 돌파하는 등 대박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날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화웨이는 '메이트XT'에 대한 사전 주문 건수가 300만건을 넘어섰다. 메이트XT는 세계 최초의 트리플폴드폰이다. 화면이 넓어 펼치면 태블릿 PC와 비슷한 크기가 된다.

화웨이는 지난 7일 낮 12시부터 공식 온라인몰에서 메이트XT에 대한 사전 주문을 받기 시작했다. 1시간이 채 안 돼 19만건이 넘는 주문이 이뤄진 데 이어 6시간 만에 100만건, 24시간 만에 200만건을 돌파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가격이 공개되기도 않은 시점에도 주문이 밀려들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로이터는 "폭발적으로 선주문이 늘었다는 것은 화웨이가 미국 제재를 극복할 수 있다는 역량을 보여준 것"이라며 "올 초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가격을 인하한 애플에 맞서는 주요 경쟁자로서 입지를 공고히 했다"고 평가했다.

◆글로벌 1위 삼성전자 방어전 펼쳐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1위를 수성한 삼성전자는 방어 전략에 주력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2억8540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6.5% 성장했다. 삼성전자는 5390만대를 출하하면서 점유율 18.9%로 1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애플은 4520만 출하량과 점유율 15.8%를 기록하면서 삼성전자의 뒤를 이었다..

하지만 최근 신제품 판매 부진을 겪은 삼성전자는 할인 공세로 점유율을 방어하고 있다.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두 스마트폰 공개일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미국 현지에서 '디스커버 삼성 가을 할인'을 진행한다. 갤럭시 Z폴드6는 최대 1500달러(약 201만원), 갤럭시 Z플립6는 최대 800달러(107만원) 할인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지난 7월 공개한 갤럭시 Z6 시리즈에 이어 이르면 10월 더 얇은 폴더블 폰 신제품을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모델은 외부 스크린은 6.5인치, 내부 스크린은 8인치로 전망된다. 이는 일반 바형 스마트폰인 갤럭시 S24 울트라와 비슷하고, 플드6보다는 더 큰 수준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4800만 화소 카메라에 '가격 동결'... 韓, AI 지원은 아직 미정

'아이폰16' 13일 사전주문 시작

한국 1차 출시국 포함... AI는 아직 AI, 올해 美... 내년엔 일본·중국 적용
1200만 울트라와이드 등 카메라 성능↑
오픈형 에어팟 첫 노이즈 캔슬링 탑재

애플이 인공지능(AI) 기능을 탑재한 신작 '아이폰16' 시리즈를 공개했다. 애플은 처음으로 한국을 아이폰 1차 출시국에 포함했다. 판매 가격은 인상하지 않았다.

애플은 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파티노에 있는 애플파크에서 신제품 발표 행사 '이제 새롭게 빛나다'(It's Glowtime)를 열고 아이폰 16 시리즈와 애플워치10, 에어팟4 등 신제품을 선보였다.

팀 쿡 애플CEO는 이날 "애플 인텔리전스와 혁신적인 기능을 위해



아이폰16 시리즈는 6.1인치형 기본 모델과 6.7인치형 플러스, 고급 모델인 6.3인치형 프로와 6.9인치형 프로맥스로 구성됐다. /뉴시스

근본부터 다르게 설계된 첫 아이폰을 소개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한국 1차 출시국 확정... AI 도입 일정은 미정

한국은 처음으로 미국과 동일한 일정에 아이폰을 만나볼 수 있다. 아이폰 16 시리즈는 오는 13일부터 사전 주문이 시

작되며 20일 출시된다. 다만 애플의 첫 AI 기능으로 기대를 모았던 '애플 인텔리전스'는 제품 출시 이후 업데이트로 이용할 수 있다. 국내 서비스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르면 2026년에 한국어 버전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올해는 영어만, 내년에는 일본어 중국어 등 일부 언어만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폰16 시리즈는 ▲기본 모델(6.1인치) ▲플러스(6.7인치) ▲프로(6.3인치) ▲프로맥스(6.9인치) 등 4종으로 구성된다.

기본 모델과 플러스 사이즈는 이전 모델과 같지만, 프로와 프로맥스는 디스플레이 크기가 더 커졌다. 아이폰16 프로맥스의 경우 아이폰 제품 중 가장 큰 크기다. 출고 가격은 달러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광각 화소·촬영 센서 대폭 업그레이드

이번 아이폰 신작의 핵심은 카메라와 AI 기능 업그레이드다. 4800만 화소를 지원하는 광각 카메라가 탑재됐으며 접사 사진까지 촬영 가능한 1200만 화소의 새로운 울트라와이드 카메라가 탑재된다.

카메라는 초당 120 프레임의 4K 돌비 비전 동영상 촬영을 지원한다. 이는 아이폰 사상 최고 수준의 해상도와 프레임률의 조합으로 스마트폰으로는 최

초로 선보이는 성능이다.

이에 더해 강력한 5배 망원 카메라가 탑재돼 더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다. 슬로 모션 또는 비디오 모드로 초당 120 프레임의 4K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사진 앱에서 동영상 촬영본의 재생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다.

프로 라인업 모두 4개의 새로운 스튜디오급 마이크를 탑재하기 때문에 생생한 사운드를 녹음할 수 있고, 이제 비디오 촬영 시 공간 음향 캡처도 지원된다.

새롭게 도입된 기능은 카메라 컨트롤 기능이다. 기기 우측 하단에 장착된 카메라 컨트롤에는 버튼을 눌렀을 때 피드백을 전달하는 촉각 스위치, 살짝 누르는 제스처를 감지하는 고정밀 포스 센서, 터치 상호 작용을 지원하는 정전식 센서 등 기능이 다수 탑재된다.

/구남영 기자

산업연구원 "글로벌 전기차·배터리 판매 둔화"

'전기차·배터리 산업 이슈 보고서'
中 저가 공략 영향... 투자 조정 필요

글로벌 전기차·배터리 시장에서 중국의 급격한 부상에 대응하는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배터리 업계의 낙관적 전망에 따른 대규모 투자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차·배터리 산업의 주요 이슈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세계 전기차 판매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나, 지난해 성장세가 다소 위축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주요국 배터리 전기차 기준 10.6% 증가에 그쳤다. 한국은 지난해 배터리 전기차 판매가 거의 늘지 않았고, 올해 상반기는 15.3%나 감소했다.

세계적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나 하이브리드차는 지난해 각각 51%, 33.3% 증가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도 각각 58.7%, 17.1% 증가했다. 반면 한국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는 거의 팔리지 않고 있다. 하이브리드차 판매는 작년과 올해 상반기 각각 44.1%,

28.7%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산 전기차·배터리가 글로벌 시장은 물론 우리 시장에도 침투하고 있다. 작년과 올해 상반기 중국산 전기차(BEV+PHEV) 생산의 세계 시장 비중은 68%를 넘어섰고, 중국 시장을 제외한 세계 시장에서도 21%가 넘는 전기차가 중국산이었다. 이미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 비중은 적지만, 유럽 시장은 중국산 비중(BEV 기준)이 올 상반기 18% 상회하며 빠르게 늘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인도발 지중해 항로 강화... 대서양도 고려"

» 1면 '신규 해운동맹 결성...서 계속'

이중 유럽 항로는 MSC와의 선복 교환 협력을 통해 기존 8개(북유럽 4, 지중해 4)에서 11개(북유럽 6, 지중해 5)로 대폭 강화된다.

HMM은 2025년부터 미주서안 12개, 미주동안 4개, 북유럽 6개, 지중해 5개, 중동 3개 등 총 30개 항로를 얼라이언스 협력을 통해 제공한다. 또 단독 운영 항로인 인도발 지중해 항로를 강화하고 인도발 북유럽 항로 및 남미동안 항로 등을 신설해 서비스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한국 선사와의 진출이 어려웠던 대서양 항로 참여까지 고려하는 등 글로벌 선사로서의 위상을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HMM은 서비스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기항수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주요 거점 항만 확대, 신규 직기항 서비스 등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북유럽 항로는 타 협력그룹(오션, 제미나이)에서 제공하지 않는 부산·일본·베트남 직기항 서비스를 유일하게 제공한다.

/양성운 기자 ysw@